

# 광주에서도 빈대 출몰 지자체 일주일간 '쉬쉬'

### 서구 단독주택 반지하 주민 신고...스팀소독·살충제 살포 등 조치 서구, 당일 시에 보고 "절차 문제 없어"...광주시 뒤늦게 발표 논란

광주에서도 첫 빈대가 발견됐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빈대에 물려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가 현장에서 빈대가 다수 서식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문 민간 소독업체에 의뢰해 가구 등 스팀소독을 하고 살충제를 뿌려 방제 조치했다.

빈대 알 부화 기간이 2주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3차례 이상 방제 작업을 반복할 계획이다.

빈대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집이나 인근 주택으로 전파되는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서구는 빈대를 신고한 주민이 홀로 사는데다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외부 전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서구와 광주시는 빈대가 확인된지 일주일 이 지나서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해 시민 건강권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혹시 광주에서도 빈대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 상황임에도 빈대 출몰을 7일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빈대가 사람의 옷이나 대중교통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서구와 광주시는 빈대 발생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빈대 발견 직후 행정안전부가 배

포한 매뉴얼에 따라 구청장과 광주시 측에 보고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재난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13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빈대 관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숙박업, 목욕탕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 8일까지 4주 동안 점검할 방침이다.

첫 주 차에는 927개 시설 가운데 206곳(22.2%)을 점검했으며 아직까지 빈대 서식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빈대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침대 매트리스나 가구 틈새, 소파, 책장, 침구류, 옷 등을 살펴 검은 곰팡이처럼 생긴 배설물 흔적이거나 노란 탈피 껍데기 등 흔적을 찾으면 된다. 빈대는 특유의 노란내 또는 곰팡이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빈대에 물리면 모기에 물린 것과 비슷한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며 2-3곳을 연달아 물리면 일련 또는 원형 자국이 생기기도 한다.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드물게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 고열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물린 이후에는 물린 부위를 긁지 말고 물-비누로 씻은 뒤 의사-약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가려움증은 1-2주 내에 회복되며, 가려움증이 심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크림과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야 한다.

빈대 발견 시 110(국민콜)이나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 전남대 의예과 276점·조선대 272점

### 광주교대 232점·GIST 253점·에너지공대 255점 안팎

#### 광주진학부장협 지원 가능 점수 분석

광주지역 고3수험생들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의예과 지원가능 점수는 276점, 조선대는 272점대일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정보분석팀은 21일 "광주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 대학 지원가능 점수가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대 의예과의 경우 지난 수능보다 6점, 조선대 의예과도 2점 하락하는 등 자연계 수험생에게 더 까다로운 수능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진학부장협의회는 "이번 수능에서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3~4점, 중위권은 5~6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문계열 최상위권은 지난해와 유사한 점수대가 형성됐으나 중하위권 점수 하락폭이 큰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가채점 분석결과 광주교대의 지원가능 점수는 232점,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지원가능 점수는 253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원가능 점

수는 255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대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201점 안팎으로 추정됐다. 영어교육과 233점, 국어교육과 231점, 행정학과 228점, 경영학부 224점이다.

자연계열 의예과 276점, 치의학과 269점, 약학부 266점, 수의예과 261점, 전기공학과 247점, 간호학과 220점으로 관측됐다.

조선대 의예과는 272점, 치의예과 267점, 약학과 264점, 간호학과 198점이며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단, 조선대는 지역인재 전형 기준으로 정시 선발 비율이 전년도 20.5%에서 올해 8.8%로 대폭 감소해 정시에 지원할 경우 수시 이월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은 267점 내외, 자연계열 272점 내외이며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264점 내외, 자연계열 254점 내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학부장협의회는 "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준 점수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따른 것으로 수시 이월인원 발표 시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 "원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분석자료는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점수이기 때문에 영어 등급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수능 성적을 토대로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대학지원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국·영·수 과목이 까다롭게 출제된 데 비해 사회탐구의 경우 경제와 동아시아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은 45-50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과학탐구도 지난해 수능에 비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돼 1등급 커트라인은 과학탐구 I 과목에서는 46-47점대, 과학탐구 II 과목에서는 42-44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24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 대상 가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 대상 실제점 결과분석 설명회,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학부모 대상 수능 실제점 기준 대입 지원 설명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8일-23일 '정시모집 대비 1대1 대면상담'도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2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유촌동 영산강환경유역청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원상복귀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 전국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어선 만든다

### 해수부, 22일 영암서 건조식...완도수산고 등 6곳 2026년부터 체험

완도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선 등 전국 6개 수산계 고교 어선 공동실습선이 건조된다.

해양수산부와 교육부는 22일 영암 중앙해양중공업(주)에서 전국 6개 수산계고교에서 사용할 어선 공동실습선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6개 수산계 고교는 완도 수산고를 비롯해 인천해양고등학교, 충남해양고등학교, 경북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경남해양고등학교, 울릉고 등이다. 학교 교육과정 등에 따라 2026년부터 각 수산계고에서 승선해 실습이 가능하다.

이번에 건조되는 공동실습선(3090t급, 전장 89.5m·폭 15m)은 학생과 승무원 등 11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로 한번 출항하면 21일 연

속 운항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엔진으로 8000마일(하와이 왕복거리) 원양항해도 할 수 있다.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해양인명구조 실습장과 선박조종 및 기관실 모의실습 장치, 어군탐지 연습을 위한 해양드론교육장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 공동실습선 건조를 통해 수산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산계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임해 미래 우수 수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 광주·전남 환경단체, 일회용품 규제 원상복귀 촉구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자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애초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21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9월 일회용품 보증금제 백지화에 이어 이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조치까지 철회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맞춰 준비해온 소상공인은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조치에 따라 종이빨대를 만들어온 제조업체들은 정부만 믿었다가

오히려 도산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 연합에 가입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원안으로 돌리고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강제하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장묘 | 수목장·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 무료안치: 062-449-4446